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역상품권
이상 거래 현장 점검

정읍시가 지역상품권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부정 수취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4주간 관내 가맹점 51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인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먼저 걸러낸 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는 위반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쟁취 회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비싸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에
신규 장난감 32종 확충

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신규 장난감 32종을 대여점에 확충하고 15일부터 본격 대여서비스에 들어갔다.

시 여성가족과는 기존 대여점 회원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선호하는 32개 품목을 엄선해 구비하면서 총 1217개의 품목을 보유하게 된다.

대여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 내 보육 시설이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번에 장난감 2점을 14박 15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대여점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연간 가입비는 개인 2만원, 시설 5만원이다. 시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무료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성모병원, 보건의로 공백 메운다

부안군과 필수의료인력 지원 협약 맺어...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줄포면 보건지소 진료 개시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성모병원(병원장 이재훈)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정상화하고 1차 보건의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중보건조사 배정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놓여진 보건지소 등의 진료 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이번 사업은 관할 책임의료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투명해졌다.

다행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안성모병원이 지역사회 의료안정 강화와 위해 전문 의료인력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분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안성모병원은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우수한 전문의를 줄포면 보건지소에 파견해 남부안 권역(줄포·진서·보안면) 지역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공중보건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가 잠정 중단되거나 순회 진료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인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분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안성모병원은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우수한 전문의를 줄포면 보건지소에 파견해 남부안 권역(줄포·진서·보안면) 지역 주민에게 진료 서

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공중보건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가 잠정 중단되거나 순회 진료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간부공무원,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방문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 드론통합지원센터 · 고창종합테마파크 예정 부지 찾아

고창군이 지난 15일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 국장을 비롯한 부서장, 읍·면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간부공무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차와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

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이후 고창군 공무원들은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을 조성하는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사현장을 찾았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관광 분야 핵심사업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서 체류형 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숙박·레저·생태·세계유산 콘텐츠를 한데 묶어 고창 관광의 체류 기반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형 숙박시설 465실, 700석 규모 컨벤션센터, 18홀 골프장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 관광의 숙박·레저 기능을 강화할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리조트 부지조성이 한창 진행 중이며, 건축 인허가와 실시설계,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노을대교, 서해안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해 서해안권 대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19세 이상 장애인 38명에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지원

정읍시는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38명을 선정해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해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기울인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읍시청 노

인장애인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용권(바우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12월 까지 관내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기관 10곳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고창군-전북연구원, 군정 미래성장 전략 논의

교육·농생명·교통 인프라 등 핵심 현안·발전 방향 공유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지난 14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안사업 담당 부서장·팀장,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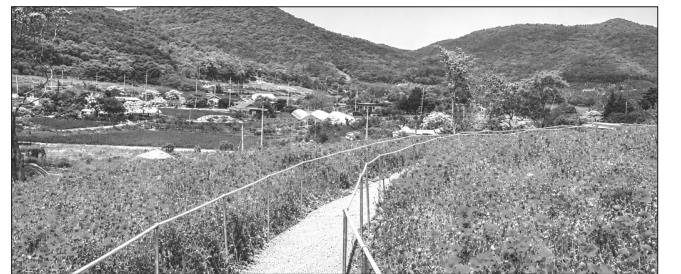
주요 안건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新)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추진 △국지도 15호선 무장-공음 구간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정책 검토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 동향, 타 지자체 추진 사례, 공모·재정사업 연계 가능성, 사업별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북연구원은 "고창군은 교육, 농생명,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전북연구원도 고창군의 주요 현안이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비플래닛' 정원에 붉은 꽃양귀비 만개

고창사랑기부금 활용·부안누에타운 일원 약3만평 부지 꽃양귀비 심어

부안군은 변산면 부안누에타운 옆 유희부지가 고창사랑기부금으로 조성한 생태정원 '비플래닛(Bee Planet)'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고창사랑기부금 ESG 환경사업인 '야생벌 봉양을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으로 변산면 마포리 일원 약 9만 9173㎡(3만평 규모) 부지에 꽃양귀비를 식재해 비플래닛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최근 붉은 꽃양귀비가 만개하

면서 과거 황무지였던 공간이 벌과 꽃이 공존하는 생태정원으로 변모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꽃양귀비 군락은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야생벌과 꿀벌의 먹이원을 확대해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향후 정원 내에 야생벌 서식시설인 비호텔(Bee Hotel)도 조성해 환경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환경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